

김기림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 의식 고찰

맹문재*

1. 서론
2. 여성 의식의 실제와 의미
 - 2.1. 신정조관
 - 2.2. 여성미의 추구
 - 2.3. 평등한 결혼생활
 - 2.4. 여성 의식의 의미
3. 결론

*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국문초록

김기림은 서구의 문학기론을 받아들여 기존의 한국문학을 극복하려고 했던 시인이고 비평가였다. 또한 한국문학사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소설가였고 극작가였으며 수필가였다. 김기림은 언어와 표현력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1930년대의 시대상황을 담으려고 했다. 그가 시, 소설, 희곡, 수필, 비평 등에서 내보인 여성의식 역시 그 산물이다. 김기림이 살아가던 1930년대의 여성들은 근대교육을 받고 여성잡지를 읽고 각종 서구문화의 접촉을 통해 이전 시대의 여성들보다 근대의식을 가졌지만,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남성 지배적인 유교규범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제약 때문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근대화의 주체자가 어디까지나 일제였으므로 조선의 여성들에게 자유와 권리는 없었다. 김기림은 기존의 문학 규범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의식을 주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시대를 반영하는 데에 기여하는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1940년대에 들어 김기림은 여성의식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한다. 작품에 여성이 등장하지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의식을 지속시키지 못한 것이다.

핵심어 : 김기림, 모더니즘 문학, 여성의식, 신정조관, 여성미, 평등한 결혼생활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김기림의 시작품을 비롯하여 희곡·소설·비평·수필 등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조명하려는 데에 있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는 그의 전기적인 면에서부터 사회적인 면, 심리적인 면, 작품 자체의 형식이나 문체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명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에 의한 연구가 많이 시도될수록 작가의 작품세계는 보다 넓고도 깊게 이해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기림의 문학에 관한 많은 연구에 있어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의 여성의식을 조명해보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김기림은 1930년대의 모더니즘 문학운동을 주동해간 시인이며 비평가로 “『모더니즘』은 두 개의 부정을 준비했다. 하나는 「로맨티시즘」과 세기말 문학의 말류인 「센티멘탈·로맨티시즘」을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편내용주의의 경향을 위해서였다.”¹⁾라고 주장했다. 영미 모더니즘 문학이론을 도입하여 낡은 인습과 전통에 휩싸인 채 진행되고 있는 조선의 문학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동시대의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모더니즘 문학의 본령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의 여성들은 개화를 거친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남성 지배적인 사회 제도와 유교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김기림이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여성들이 근대 교육을 받고 여성잡지를 구독하고 영화나 연극 등의 문화생활을 영유하고 자신이 선택한 남성과 연애를 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남성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김기림이 동시대의 여성들을 작품에 담은 것은 그의 모더니즘문학 추구에 있어서 주시할 점

1)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2』(심설당, 1988), p.55.

이다.

그동안 김기림의 문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후자에 좀더 비중이 실리고 있는 편이다. 특히 문학의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쪽에서 부정하는 편이 강해, 임화(林和)는 김기림의 작품세계를 여러 글에서 기교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생활의 지극히 부박한 감각적 포말을 어루만지고 있다”고 공격했고,²⁾ 김동석(金東錫)도 김기림의 『기상도』를 “신문 기사를 가지고 몇 번 재주를 넘은 희극적 비판”³⁾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계열은 다르지만 송옥(宋穉) 역시 전통의식과 역사 의식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즉 “시간의식, 그리고 이와 관계 있는 전통의식과 역사의식을 자기 작품 속에 구현할 만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내면성이나 정신성을 거의 모르는 시인이고 비평가였다.”고 비판했다.⁴⁾ 이외에 김종길(金宗吉)은 『기상도』가 엘리엇의 영향을 피상적으로 받았고 태풍이 현대문명의 상황을 상징하면서도 거의 희극적으로 그리고 있어 “작품 자체의 주제나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통일성을 가지는 데는 실패”⁵⁾했다고 평가했고, 김윤식(金允植) 역시 문명에 대한 관찰이나 리처즈와 엘리엇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어서 “한국 모더니즘 운동의 치명적 결함이라”⁶⁾고 평가했다. 김용직(金容稷)은 음악성을 파기했고⁷⁾ 형식적 인습에 대한 티파에 있어서 실패했으며 “건강, 명량한 느낌을 주는 말, 현대문명과 도시생활에 관계되는 경험 내용만을 작품에서 채택”⁸⁾했다고 비판했다. 김춘수(金春洙)는 김기림이 엘리엇에 비해 “아류의 냄새를

2) 임화, 「1933년의 조선문학의 제경향과 전망」(조선일보), 1934.1.14.

3) 김동석, 『예술과 생활』(박문출판사, 1948), p.43.

4) 송옥, 『시학평전』(일조각, 1963), p.186.

5) 김종길, 『진실과 언어』(일지사, 1974), p.217.

6) 김윤식, 『한국현대작가논고』(일지사, 1974), p.99.

7) 김인환은 김기림을 리듬 부정론자로 단정한 연구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김인환, 『문학과 문학사상』(열화당, 1979), p.108.

8) 김용직, 『한국현대시연구』(일지사, 1974), p.284.

끝내 떨어버리지 못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큰 원인”⁹⁾이었다고 보았다. 김우창(金禹昌)은 “유감스럽게도 기림의 눈은 시각적 효과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다.”¹⁰⁾라고 지적했고, 박철희(朴喆熙)는 “한국적 상황이란 현실적 여건을 외면하여 관념적이고 이국적인 그의 비전에 의해 주의력이 분산되고 통일성을 상실한 것”¹¹⁾을 지적했다. 문덕수(文德守)는 김기림의 주지주의의 결정적 허점은 T.E. 흘의 실재관, 고전적 인간관, T.S. 엘리엇의 전통과 역사 의식의 이론에 대한 몰이해에 있다고 즉 “고전적 인간관과 전통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¹²⁾ 있다고 보았고, 김인환(金仁煥)은 독자적인 확대 재생산 과정과 무기병참 체계가 붕괴된 현실에서 “구체적인 목표는 광복 하나만이었는데, 김기림은 그 목표를 믿지 못하였다.”¹³⁾고 비판했다. 이승원은 김기림의 시세계를 “신기주의, 현학주의, 무정향적 전진주의”¹⁴⁾라고 정리하고 발랄하고 경쾌하게 서구적인 것, 20세 기적인 것,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콤플렉스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김기림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서구의 이론을 도입하여 1930년대의 한국 문학에 접맥시킨 선구적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역사 의식과 전통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김학동(金學東)의 경우는 김기림이 영미문학 이론의 도입과 적용 과정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대로 봐서는 매우 전위적이었고, 또 그 반응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리 만큼 컸던 것”¹⁵⁾을 들어 긍정하고 있다. 또한 이동순은 김기림이 해방 후 간행한 시집 『새나라』를 통해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더니즘 문학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¹⁶⁾

9) 김춘수, 「교훈에서 창조로」(조선일보), 1978.12.5.

10)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민음사, 1977), p.47.

11) 박철희, 『한국시사연구』(일조각, 1980), p.234.

12) 문덕수, 『한국모더니즘시연구』(시문학사, 1992), p.245.

13) 김인환, 『문학과 문학사상』(열화당, 1979), p.109.

14) 이승원, 『20세기 한국시인론』(국학자료원, 1997), p.121.

15) 김학동, 『김기림 연구』(새문사, 1988), p.3.

그렇지만 위와 같은 평가는 김기림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아쉬움을 갖는다. 특히 김기림이 작품활동을 한 1930년대에는 도시화의 도래로 인해 이전 시대의 계몽의식 대신 일상문화의 틈새로 모던의식이 채워지기 시작해 단발을 하고 퍼머(permanent wave)를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연애를 하는 모던 걸(modern girl)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¹⁷⁾ 동시대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대에는 일제에 의한 '모성의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얼마나 순결을 잃은 타락한 여자이나? 그에게는 참된 영혼도 없고 (중략) 모성이라는 처지에서 보면 순결은 여성의 제일의 부덕일 것이다."¹⁸⁾라거나, "아! 기록하여라 어머니시여, 내 어머니신 동시에 우리 나라의 어머니시로다."¹⁹⁾, "우리 사회를 개혁하며 전도를 개척함은 (중략) 유약한 어린이를 기르는 국민의 어머니된 우리 여자이다."²⁰⁾와 같이 일제는 모성의 중요성을 각종 저널을 통해 강조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에는 더욱 모성의 식민지화를 강화시켜 여성의 출산에 적극 개입했고, 군센 여성 내지 억센 어머니 만들기에 나섰으며, 양육 방식에 적극 관여했다. 그리고 가정 교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화시켰고, 지원병 모집을 위해 모성을 동원했으며, 군국의 어머니를 예찬했다.²¹⁾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주

-
- 16) 이동순, 「김기림 시의 새로운 독법」, 『분단시대』 4(학민사, 1989), pp.24~33.
 1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맹문재, 「일제 강점기의 여성지에 나타난 여성미용 고찰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9권 제3호(한국여성학회, 2003.12), pp.5~30 참조.
 18) 노자영, 「문예에 나타난 모성과와 「영원의 별」」, 『신가정』(신가정사, 1934.3), p.78.
 19) 이광수, 「어머니」, 『신가정』(신가정사, 1933.4), p.155.
 20) 유각경, 「어쩐 어머니가 될가?!」 『신여성』 제5권 제5호(개벽사, 1931.6), p.65.
 21)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안태윤,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제19권 제3호(한국여성학회, 2003.12), pp.75~114 참조.

목하고 어머니, 아내, 며느리, 주부로서의 여성을 감화시키면 남편과 가정과 사회 전체를 감화시켜 통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김기림의 여성의식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조명해보려는 이 논문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김기림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식의 실제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추구한 작품형식과 세계인식의 전위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여성의식의 실제와 의미

2.1. 신정조관

김기림의 여성의식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글은 「정조문제의 신전망」²²⁾이다. 이 글은 1930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선일보에 게재한 상당히 긴 비평론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쓴 최초의 글이기도 하다. 김기림은 1929년 3월 일본대학 전문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조선일보사 사회부 기자가 되어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여성에 대한 관심을 제일 먼저 나타내었기에 주목되는 것이다.

「정조문제의 신전망」은 근대국가의 도래로 인한 자유주의 사상의 진전과 제1차 세계대전 후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여권의 확장, 세계경제의 대공황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정조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들면서 그 필요성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글이다. 이 글은 김기림 문학의 여성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좀더 요약해보기로 한다.

22)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⑥』(심설당, 1988), pp.9~23.

1)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정조의 지반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수백만의 병사들은 전사했고, 전사의 여성들이 전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일부일부(一夫一婦)의 제도는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 사회 역시 새로운 자의식을 획득한 여성들과 고루한 남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2) 연애의 사적 발전과 정조와의 관계— 혼인제도는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장구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는 것으로 각 시대의 경제적 조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애는 자본주의적 자유사상의 부대 결과이다. 그리고 정조문제는 남성의 측면에서는 전연 문제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여권사상의 발달과 함께 그 편무성(片務性)의 불합리한 점이 점점 인정되기 시작했다.

3) 정조과중설(貞操過重說)— 정조는 인간의 자연적·본능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구의 약속 속에서 발생한다. 정조 발생의 근본 동기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봉건사회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남성이 도구로 이용함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정조라고 하는 도덕률의 근거를 엄중히 탐색하여 그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4) 성소의 파산— 길혼 외의 상관계는 피임법의 과학적 발달과 그 일반적 보급에 의해 늘어나기 때문에 정조의 파괴는 빨라질 것이다. 정조의 파산은 시대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김기림은 정조의 파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라고 보고 또 그 필요성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남성에 의한 인위적인 지배의 한 도구인 정조를 파괴하고 아침의 태양이 비치는 자유의 천지로 약진하는 여성들이 속속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1933년 4월 『신여성』(제7권 제4호)에 「직업여성의 성문제」²³⁾

23)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6』(심설당, 1988), pp.35~41.

를 또한 발표한다. 아무 비판 없이 자신의 의사를 억제하고 봉건적 도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인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무서워 자신의 정조까지 제공하는 사람 역시 인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형이기 이전에 자신이 사람이라고 부르짖은 입센의 「인형의 집」에 등장하는 ‘노라’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림의 신정조관은 시작품에서도 보이고 있다.

처녀 : (초마자락으로 눈을 가린다.)
 꼭 도라오신다고 했는데요. 十年이라도 기다려야하지요. 다른 데로 옮겨안줄 몸이 묶됩니다.
 할머니 : (새빨개진 얼굴을 좀보시오.)
 무얼 잊저고 잊재? 그러면 그놈에게 몸을 허락했단말이나?
 처녀 :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할머니 : (담배대를 다시 집는다.)
 그러면 그러치 아모일도 없다. 내 말대로 해라.
 처녀 : (동글한 주먹이 입술가의 눈물을 씻는다.)
 그러치만 할머니 그러치만.
 할머니 : ?
 처녀 : 나는 그에게 마음을 주어보냈어요.

— 「고전적인 처녀가 있는 풍경」²⁴⁾ 부분

위의 작품은 1933년 5월호 『신동아』(제3권 제5호)에 발표한 것인데 시 작품의 형식이 연극 대사와 같을 정도로 상당한 실험성을 띠고 있다. 물론 이전 시대에 프로문학에서 대중화론의 방법으로 쓰인 슈프레히 콜의 형식이 있기도 하지만, 김기림의 여성의식의 전위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작품에서 “처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애인을 기다리고 있고 “할머니”는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좋은 시절 다 놓친다고 마음 고쳐먹기를

24)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1』(심철당, 1988), p.296.

권하고 있다. 그렇지만 “처녀”는 “그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변심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김기림은 그와 같은 상황을 “고전적인 처녀가 잇는 풍경”이라고, 즉 “처녀”와 같은 고전적 정조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그와 같은 주장을 직접적인 감정으로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면이 바로 기존의 낭만주의 작품에서 보여준 과도한センチ멘털리즘이나 카프문학에서 보여준 지나친 내용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김기림은 여성의 정조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 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애인이여/당신이 나를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때 나는 당신의 밖에 있습니다/만약에 당신의 속에 내가 있다고하면 나는 한덩어리 목탄에 불과할 것입니다”(「연애의 단면」)²⁵⁾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 “해변에서는 너자들은 될 수 있는대로/고향의 냄새를 잊어버리려 한다./먼— 외국에서 온 것처럼 모다/동편 몸짓을 꾸며보았다.”(「풍속」)²⁶⁾라고 낯은 관습이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적극 지향하고 있다.

김기림의 신정조관은 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기림은 총 4편의 소설을 남겼는데²⁷⁾, 신정조관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은 「철도연선」이다. 이 작품은 『조광』에 3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작품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함경도 지방의 어휘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1930년대의 사회를 이해하는 자료로써도 가치가 높다. 김기림은 말과 글과 문장 등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말은 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민중인 것이다. (중략) 대중은 기실 새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투른 순수주의자들보다는 사뭇 천재인 것이다”²⁸⁾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25) 위의 책, p.20.

26) 위의 책, p.56.

27) 「사랑은 경매 못합니다」(『삼천리』, 제5권 제1호, 1933.1), 「어떤 人生」(『신동아』, 제4권 제2호, 1934.2), 「변영기」(조선일보, 1935.11.2~11.13), 「철도연선」(『조광』, 1935.12~1936.2).

그와 같은 언어관으로 이 작품을 쓴 것이다.

『철도연선』은 기차에 탄 한 손님이 함께 탄 다른 손님으로부터 철로 건설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액자식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골마을에 철로공사가 들어서면서 조용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던 “박준이 영감”의 집도 하루 팔십 전이나 받으며 아들 “명식”과 열여섯 살 된 손자 “재수”가 공사판에서 일하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생활의 변동이 생긴다. 그렇지만 다양한 인부들이 몰려들고 마을 이곳저곳에 음식점과 술집들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농촌마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발생한다. “박준이 영감”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걱정하고 “구장”에게 가서 얘기해보지만, 철로공사로 인해 잘살게 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면박당한다. “박준이 영감”은 속이 상했지만 구장이 일제 순사의 앞에 서서 다니는 존재였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사장에서 장정들이 죽고, 젊은 인부가 색주گار로부터 성병이 걸려 자살을 하고, 인부들끼리 싸우고, 인부와 술집 여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등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명식”의 아내 “윤씨”가 공사판 십장하고 눈이 맞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종일토록 윤씨의 마음은 실없이 들락날락했다. 열네살 나는 겨우 고사리 같은 아기네로서 벌써 그때에 장작개비처럼 꾀꼬리해진 덜렁 총각이던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신기하게도 다음 해에 재수를 낳고는 그만 후산을 잘못하고 단산이 된 윤씨의 몸은 아기설이를 많이 한 다른 동갑들보다도 아직은 토실토실 한대로 남아 있다. 어머니 없는 홀아버리를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는 심오륙년을 하루같이 시아버지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과 그리고는 그 얼굴과 똑같은 마을사람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왔다. 남들이 다 몇 번씩 가보았다는 장에도 시아버지의 저녁밥 때문에 가본 일도 없었다. 오십리나 산골로 더 들어가야 있던 친정집에서는 서간도로 이사해 간 후 헛수를 잊어버릴 지경이다. 그는 지금 마을사람들보다는 어디라 없이 늙은이가 있는 인부꾼들의

가끔 도착질해 보는 몸짓과 말소리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다.
— 「철도연선」 부분²⁹⁾

“윤씨”가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시자고 부탁한 “십장”에게 물을 건네면서 그의 모습을 처음 보고 난 후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윤씨”는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이인 14살 때 시집을 왔고, 시집 온 후에도 시집살이에 시달려 장에도 한번 못 갔고 친정에도 못 다녀올 정도로 갑갑한 생활을 해왔다. 그리하여 외간 남자인 “십장”을 보는 순간 자신의 남편이나 마을 사람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상과 말투로 인해 호기심이 생겼다. 자신의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화를 잘 내는 것과는 달리 십장은 “미끄러운” 말씨와 행동을 보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을 때마다 이전보다 신경을 썼고, 심지어 색주가들처럼 얼굴에 분을 바르고 머릿기름을 바르고 옥당목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도 입고 싶어했다. “십장”은 “윤씨”의 그와 같은 심정을 잘 파고들어 둘 사이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윤씨”의 남편인 “명식”은 아내의 그와 같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분풀이로 아내를 구타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내의 행동이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공사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그는 안전사고를 당해 죽고 만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재수”는 밤나들이를 하며 가까워진 술집 여자 “순남”이와 함께 끝내 마을을 떠나버린다. 철로 공사가 끝나자 “십장”과 눈이 맞은 떠느리 “윤씨” 또한 시아버지 모르게 떠나간다.

붉은 기와를 인 정거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남빛 양복쟁이가 앞을 막는다.

『모래차는 떠났음애?』

29)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5』(심설당, 1988), p.59.

『에 벌써 새벽에 떠났오.』

『새벽에?』

박존이의 입은 거의 흉내내는 것처럼 되씹어 보았다. 돌아서 나오다가 다시 양복쟁이의 쪽으로 달려갔다.

『그차에 웬 양복쟁이 젊은 아간을 데리구 가능케 없음메?』

『에— 저 도리소에 와 있는 십장이 웬 아즈머니를 데리구 갑데.』

양복쟁이는 영감의 얼굴을 굽어보면서 껄껄 웃는다. 그는 젊은이의 비웃는 눈초리를 피하는 것처럼 얼른 돌아선다.

— 「철도연선」 부분³⁰⁾

이처럼 “박존이 영감”이 며느리 “윤씨”를 찾으려고 정거장까지 달려갔지만 허사였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지만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다. “양복쟁이는 영감의 얼굴을 굽어보면서 껄껄 웃는다. 그는 젊은이의 비웃는 눈초리를 피하는 것처럼 얼른 돌아선다.”라는 데에서 보듯이 며느리의 길을 막을 수도 없었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곧 김기림이 기존의 윤리나 관습을 깨트리려는 며느리 “윤씨”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에 필요한 여성 의식을 “윤씨”를 표본으로 삼고 내세운 것이었다.

이와 같이 「철도연선」은 철로공사로 인해 1930년대의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근대화를 상징하는 기차가 산신제를 지내고 가부장적 가정이 형성된 농촌 마을을 여지없이 관통함에 따라 부모와 남편과 자식까지 버린 아내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 속에 갇혔던 여성이 근대화되는 과정에 눈떠가는 새로운 정조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아니라 근대화 자체에만 관심이 기울고, 하부구조는 도외시한 채 상부구조의 표면적 변모만을 문체삼음으로써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일로 긍정하는 것은 이 작품에 나타난

30)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5』(심설당, 1988), p.86.

김기림의 현실 인식이 지닌 한계이다.”³¹⁾라는 비판은 작품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일제가 조선인들을 희생시키는 건설현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포착해 조선어를 살리면서 세련된 문체와 구성으로 작품화한 점은 물론이고, 기존의 유교주의적 정조관에 얽매었던 여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이 작품에서 “윤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코 비난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그것은 유교주의적 윤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이다. 부모와 남편과 자식을 배신한 아내를 도덕적 타락자로 비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린 것은 결국 여성의 신정조관을 인정한 것이다. 김기림은 여성이 기존의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에 희생되는 것보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2.2. 여성미의 추구

김기림은 1932년 9월 『동광』(제4권 9호)에 여성의식이 담긴 「미스·코리아여 단발하십시오」를 발표한다. “지금 당신이 단발하였다고 하는 것은 몇 천년 동안 당신이 얽매어 있던 「하렘」에 아주 작별을 고하고 푸른 하늘 아래 나왔다는 표적입니다. 얽전하게 따서 내린 머리 그것은 얽전한 데는 틀림없지만 거기는 이 시대에 뒤진 봉건시대의 꿈이 흐릅니다.”³²⁾라고 평가하고 있듯이 여성의 단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선 여성의 단발에 대해서는 1920년대 중반에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는 것이어서³³⁾ 김기림의 단발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진보적인 여

31) 최시한, 「공허한 세계주의와 체험의 현실화」, 김학동 엮음, 『김기림연구』(시문학사, 1991), p.174.

32)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6』(심설당, 1988), pp.89.

33) 「단발문제의 시비」(『신여성』, 제3권 제8호, 1925.8), pp.37~53에 수록된 다음

성의식을 또한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김기림은 1935년 1월 『신가정』(제3권 제1호)에 「이화식 옷차림」³⁴⁾을 발표한다. 의상계 일반의 풍조인 이화식 옷차림이 단순하고 간편하지만, 저고리가 너무 길고 치마가 너무 짧아서 마치 저고리와 치마와 양말이 키를 3등분한 듯한 단순한 느낌을 주므로 선과 선의 다양성과 풍부한미를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 장옷과 쓰개치마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내외법 역시 무용했으며 양장이 일반적이었다. 여학생들의 교복도 1920년대는 한복이 대부분이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는 양장으로 바뀌었다. 여성들이 양장을 하고 하의가 점점 짧아지자 각선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고, 다양한 조끼와 스웨터가 등장했으며, 속옷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그리

의 글은 1920년대의 여성 단발에 대한 논의를 잘 보여준다.

- (1) “단발하는것은춥습니다-미관, 경제, 위생으로다춥타”(이화전문교교수 조정환)
- (2) “단발한다면 반대는안춥습니다-사업능률을진보케한다”(동덕여학교장 조동식)
- (3) “개인에취미에 막힙니다-의복이개량되고습관이변사한때에는”(숙명여학교무주임 山野上長次郎)
- (4) “낮분것이라고는생가지안습니다-경제와편리로는썩춥타”(배화여교학감 김숙윤)
- (5) “단발이일반의풍속이된다면-아직은단언할수업다”(여고보교장 高本干鷹)
- (6) “일반이찬성하게되면춥타-의복도개량이된다면”(진명여고부교장 小杉彦次)
- (7) “단발은머리해방을얻는것입니다-단발하면전보다 더보기 도쁠것입니다”(金美理士)
- (8) “나는 단발을주장합니다-우리의실생활에빛추어편의한점으로”(주세죽)
- (9) “단발은가든하고활발하고춥다-일반이다착는풍속이되엿스면”(申알베드)
- (10) “각각자기의 취미대로-시비거리나풍기문제가아니다”(김준연)
- (11) “조선도 단발이 풍속이될줄안다-조흔일은언제던지실행된다”(박승철)
- (12) “단발을헛스면-미로보아서더욱춥타”(안석주)
- (13) “나의 단발후감상-여자로서단발한후의 실감 참! 편리하고춥타”(S)
- (14) “내가상투를썩든새 처음단발하던분의 실감-단발했다가뜨기르고또단발”(이상재)

34)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⑥』(심설당, 1988), pp.126~127.

고 의복의 색깔이 다양하고 대담해졌다. 따라서 김기림이 여성미에 대해 적극성을 띤 것은 시대의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 (1) 순이/너는 홀랑히 빛나는 살갓을 가지고 있구나./벗어버리렴으나 그런 人造絹 양말은(「이동건축」)³⁵⁾
- (2) 「페이브먼트」를 따리는 수없는 구두소리(「꿈꾸는 眞珠여 바다로 가자」)³⁶⁾
- (3) 「쇼-윈도우」의 마네킹人形은 핫웃을 벗기우고서(「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의 연미복을 입고」)³⁷⁾
- (4) 부끄럼 많은 寶石장사 아가씨/어둠 속에 숨어서야/루비 싸파이어 에메랄드……/그이 寶石 바구니를 살그머니 뒤집니다.(「밤 향구」)³⁸⁾
- (5) 그 女子의 머리의 五色의 「리본」/(중략)/필경 양복 입는 범을 배워낸 宋美齡女史(「시민행렬」)³⁹⁾
- (6) 알롱 달롱 五色의 「레-쓰」를 수놓은 꽃 사이에서/순이와 나도 붉게 피는 꽃떨기 한쌍이었다(「먼 들에서는」)⁴⁰⁾
- (7) 붉은 머리수건을 돌른/白系露人 女子의 다리가/놀랜 把守兵의 視野를 함부로 가로건넌다(「풍속」)⁴¹⁾
- (8) 푸른 空氣의 堆積 속에 가로서서 팔락거리는 女子의 바둑판 「케-프」(「상아의 해안」)⁴²⁾
- (9) 비로-드처럼 눈을 부시는 새감안 「푸록코-트」를 입은 하늘님의 옷섭에 서는 金丹추들이 반짝이오(「하루 일이 끝났을 때」)⁴³⁾

김기림은 위의 작품들에서 보듯이 근대적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미를 담아내었다. 여성미는 여성만이 지니는 특유의 아름다움이다. 여성이 그 나

35)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Ⅱ』(심설당, 1988), p.117.

36) 위의 책, p.35.

37) 위의 책, p.113.

38) 위의 책, p.49.

39) 위의 책, pp.128~129.

40) 위의 책, p.39.

41) 위의 책, p.94.

42) 위의 책, p.109.

43) 위의 책, p.114.

름대로 화장을 하고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장신구를 착용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미에는 주체성이 들어 있고, 육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대사회 이전에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가치가 중시되어 여필종부(女必從夫)나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여성미의 근간이었다. 그렇지만 근대사회 이후에는 각선미, 신장, 몸무게, 피부, 얼굴 생김새와 같은 육체적인 면과 헤어스타일, 의상, 핸드백 등의 장신구와 관계된 여성미가 중시되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본분을 다하고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도리를 지키는 정신적 차원의 여성미보다 육체를 토대로 한 여성미가 중시된 것이다.

彼女들의 「하이힐」이 더 한층 가벼움을 느낄 때가 왔다.

肉色의 「스타킹」—

극단으로 짧은 「스커트」— 등등으로 彼女들은 둔감한 가두의 기계문명의 표면에 질은 「에로티시즘」과 발랄한 흥분을 농후하게 칠 것이다.

털 깊은 외투—

숨 놓인 비단 두루마기—

두터운 防寒服—

여우털 목도리— (중략)

「시크라멘」은 봄이 던지는 첫 「키스」를 빼기 위하여 花商의 「쇼윈도우」 속에서 붉은 입술을 방긋이 벌이고 있고 彼女들의 푸른 치마폭은 아침의 「아스팔트」 위에서, 백화점 층층계 위에서 깃발과 같이 발랄하게 팔락거리지 않는가. (중략)

실로 그 봄 때문에 선량한 「마담」도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잠깐 「一夫一婦」를 「핸드백」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건망증의 傭嬢 여고 4년 동안 닦아넣은 孔夫자의 倫理를 승강기의 「큐손」위에 저도 모르게 흘리고 다니기도 한다.

— 「봄의 전령」 부분⁴⁴⁾

위의 수필은 1933년 2월 22일 조선일보에 발표한 것인데, 동시대의 여성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 근대 이전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약자여서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는데, 위의 글에서는 그 극복을 보여주고 있다. “선량한 「마담」도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잠깐 「一夫一婦」를 「핸드백」속에 집어 넣기도 하고 건망증의 俞孃 여고 4년 동안 닦아넣은 孔夫子의 倫理를 승강기의 「큐손」위에 저도 모르게 흘리고 다니기도” 할 정도로 주체적인 여성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3. 평등한 결혼생활

김기림이 최초로 발표한 시작품은 1930년 9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이다. 이 작품은 'G.W'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는데, 그 후 부분 수정을 가하여 1939년 학예사에서 간행된 두 번째 시집 『태양의 풍속』에 수록했다.⁴⁵⁾ 『태양의 풍속』은 1936년 7월에 출간된 『기상도』보다 늦었지만, 1930년부터 1934년까지 발표된 것들을 수록하고 있어 작품의 실제 창작연도는 앞선다.

「바빌론」으로
 「바빌론」으로
 적은 女子의 마음이 움직인다.
 개나리의 얼굴이
 여린별을 향할 때…….

「바빌론」으로 간 「미미」에게서
 복숭아꽃 봉투가 날려왔다.
 그날부터 안해의 마음을 시들어져
 썼다가 찢어버린 편지만 쌓여간다.

45) 김학동, 『김기림연구』(새문사, 1988), p.177에는 수정된 부분이 밝혀져 있다.

안해여, 작은 마음이어
너의 날아가는 자유의 날개를 나는 막지 않는다.
호올로 쌓아놓은 좁은 성벽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나의 외로움은 돌아봄 없이 너는 가거라.

안해여 나는 안다.
너의 작은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동트지도 않은 내일의 창머리에 매달리는 너의 얼굴 우에
새벽을 기다리는 작은 불안을 나는 본다.

가거나, 새로운 생활로 가거라.
너는 내일을 가거라.
밝어가는 새벽을 가거라.

—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 전문⁴⁶⁾

위의 작품은 “미미”가 한때 번영을 누렸던 도시 “바빌론”(Babylon)에 가서 “복숭아꽃 봉투”를 보내올 정도로 행복하게 지내자, “안해(너)”가 부러워해 남편인 “나”가 그 “새로운 생활로 가”라고 허락 내지 제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내는 “적은 여자”라고 비유되고 있듯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미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움직”이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곧 “마음은 시들어”져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릴 뿐이다. 남편은 “너의 작은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알고 “너의 날아가는 자유의 날개를 나는 막지 않”을 것이라고, 즉 “호올로 쌓아놓은 좁은 성벽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나의 외로움은 돌아봄 없이” 떠나가라고 제의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일로 가”는 것이고, “밝어가는 새벽을”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바빌론과 그곳에 가 있는 미미는 아내의 이상향들이다. 바빌론은 인간적인 권리가 여성에게도 인정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이고,

46)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1』(심설당, 1988), p.38.

미미는 그러한 세계를 선구자적으로 추구한 인물인 것이다.

이처럼 위의 작품에서 김기림이 보여준 여성의식은 매우 진취적이다. 낡은 인습이나 전통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결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유교적 관습이 아직 강하게 지배하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위의 작품은 또한 김기림의 초기 시편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태양'과 '아침'의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기림의 작품에 있어서 태양과 아침의 이미지는 어둠과 밤의 이미지와 대립되는 것으로 이전 시대의 낡은 전통과 모순을 부정하고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태양과 함께 하는 일체만물의 생명작용에 그의 시학을 확립시켜 "동트지도 않은 내일의 창머리에 매달리는 너의 얼굴 우에/새벽을 기다리는 작은 불안을 나는" 보고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 가거라./너는 내일을 가거라./밝어가는 새벽을 가거라." 하고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김기림이 추구하는 아침과 태양의 이미지는 낡고 어두운 전통을 부정하고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상징으로, 여성의식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여성의식은 희곡작품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김기림은 문단활

47) 이 작품은 김기림의 전기(傳記) 면으로 살펴보아도 여성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동, 『김기림 평전』(세문사, 2001), pp.15~41에 따르면 김기림은 1908년 5월 11일 함북 학성군 학중면 임명동에서 태어나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16살인 덕신(信德)누나를 잃는 불운을 겪는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슬픈 기억으로 외로움을 탔다. 김기림은 11살 때 19살 된 나주 전씨와 결혼하지만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한 것이어서 부인은 2, 3년 살다가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 김기림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월녀(李月女, 일명 달이)와 연애를 해서 23세에 재혼했다. 그러나 그녀는 몸이 약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듬해 친가로 돌아갔다. 김기림은 이태 뒤인 1932년 중매로 길주에 사는 신보금(申寶金)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 그렇지만 김기림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월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미안함 등을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로 그렸다. 김기림은 이 시기에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평, 희곡, 소설, 수필 등에서도 많은 양의 작품을 쓰는데, 그 큰 동기는 이월녀에 대한 애정이었다.

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품 및 비평과 함께 희곡을 창작해 총 5편의 작품을 남겼다.⁴⁸⁾ 김기림이 희곡을 창작하게 된 이유는 1932년 동아일보가 「1932년 문단전망」이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중이 요구하는 것은 직재적(直裁的)인 구체적인 행동적인 것입니다. 연극의 승리의 근거가 이곳에 있습니다”⁴⁹⁾라고 답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김기림은 당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희곡을 쓴 것이었다. 그 자신이 문학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학이 미처 전문화되지 못한 시기에 지식인이 감당해야 할 의무감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김기림의 희곡 중에서 평등한 결혼관이 잘 드러난 작품은 「바닷가의 하룻밤」이다. 이 작품은 28세의 여성인 “영희”가 주인공인데,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8년간을 함경도 해안의 한 작은 어항에서 고기를 팔며 어렵게 살아오고 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노파”가 상처를 한 “박주사”에게 중매를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개가를 거절한다. 이웃집 “노파”가 다녀간 날 밤, 남편(“사나이”)이 “영희”를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함께 살자고 제의하지만, “영희”는 남편의 제의 또한 거부한다.

사나이 : 천만에 나의 눈에 막이 가리워서 뺨같은 계집 때문에 그만 나는 당신의 진정을 모르고 당신을 버렸오.

영희 : 그런 너저분한 사내들의 자존심을 털어버리오. 세상에 누가 누구한테 버림을 받으란 말이요. 사내란 버리게 생기고 계집이란 버리우기만 한답디까. 그리고 그 여자가 무엇이 나쁘기에 그를 나무라

48) 「떠나가는 풍선」(조선일보, 1931.1.29~2.3),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조선일보, 1931.3.3~21), 「어머니를 울리는 자는 누구냐」(『동광』, 제3권 제9호, 1931.9), 「미스터 불독」(『신동아』, 제3권 제7호, 1933.7), 「바닷가의 하룻밤」(『신가정』, 제1권 제12호, 1933.12).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5』(심설당, 1988), pp.91~165에 수록되어 있다.

49)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3』(심설당, 1988), p.229.

오. 사랑하고 싶은 사내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

사나이 : 아니오, 아니오. 영희 그렇지 않소.

영희 : 가만있오. 우리들은 누가 버린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니고 똑 같이 사랑할 수 없으니까 갈라진 것이 아니오. 우리는 아주 벌써 남남이 되었오. (중략) 지금의 내 살림 속에 당신은 뛰어들 아무 까닭도 없오.

사나이 : (머리를 숙인다).

영희 : 나는 지금 바다의 무서운 위협 소리와 사나운 눈보라 속에서 살아 나가오. 어린 것을 데리고 두 목숨이 그속에서 꺼질까 보아서 서로 부둥켜안고, 그러나 물결을 헤치며 나가오. 사랑—사랑 달콤한 미끼가 아니오. 수없는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남자들의 하는대로 그들의 손바닥에 여자의 온갖 것을 바치지 않았오.⁵⁰⁾

이처럼 “영희”는 자신의 힘으로 거친 세상을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남편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가정생활로부터 당당히 독립해 살아가겠다는 결혼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의 평등한 결혼관은 1948년 39편의 작품을 실은 수필집 『바다와 육체』(평범사)에도 나타나고 있다.⁵¹⁾ 김기림의 수필 세계는 육체의 현실과 역사의식, 역사의 ‘봄’과 생명의 ‘바다’, ‘건강한 정신’의 현실인식, 국토 순례와 고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⁵²⁾

김기림의 수필 중에서 여성의식이 두드러진 것은 「어째서 내게는 날개가 없느냐」(조선일보, 1931.3.7~3.11), 「환경은 무죄인가」(『비판』, 제1권 제2호, 1931.6), 「결혼」(『신동아』, 1932.3), 「봄의 전령」(조선일보, 1933.2.22), 「여인금제국」(『신여성』, 제7권 제4호, 1933.4), 「잊어버리고 싶은 나의 향

50) 위의 책, p.156.

51) 김기림의 수필은 『김기림 전집 5』(심설당, 1988), pp.169~436에 수록되어 있다.

52) 이종주, 「모더니스트의 보편성과 역사의식」, 김학동 엮음, 『김기림연구』(시문학사, 1991), pp.182~239.

구」(『신동아』, 제3권 제5호, 1933.5), 「사진 속에 남은 것」(『신가정』, 제2권 제5호, 1934.5), 「질투」(조선일보, 1934.12.6~12.9), 「그 봄의 전리품」(조선일보, 1935.3.17), 「여상 삼제」(『여성』, 1939.6), 「가정론」(조선일보, 1939.11.25) 등이다.

1931년에 발표한 「환경은 무죄인가」는 두 지식 여성이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을 통해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현대를 결혼 수난기로 보고 두 여성의 자살을 “만천하의 무이해한 부형과 남편들과 그리고 그들이 보존하고 있는 인습적 결혼관념에 대한 도전장의 제출이며 결혼에의 몸으로써 한 부정관념이며 동시에 낡은 이끼 낀 「에펠」의 탑에 바친 산 제물”⁵³⁾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32년의 작품 「결혼」에서는 결혼이란 인격이나 사랑보다도 지갑의 무게 때문에 결정된다고 보았고, 연애란 일종의 전쟁이어서 예외 없이 남자가 패배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수동적인 여성관을 깨트리고 평등한 결혼관을 제시한 것이다.

2.4. 여성의식의 의미

1930년대의 식민지 상황에서는 모성애가 여성의 자연적 본성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메시지로 결부되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여성상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모성이 예찬되는 기저에는 식민지 상황에 의해 권위를 상실당한 부권(父權)이 존재한다. “새로운 근대적 지식체계를 갖추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는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아들의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식민세력에 대항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조선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조선의 미래’인 아들 세대에게 기대를 걸었고, 그러한 기대는 결국 취약한 부권을 대신하여 ‘조선의 신생과 번영’을 가져올

53)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5』(심설당, 1988), p.393.

다음 세대를 낳아 양육하는 여성의 민족에 대한 '사명'으로서의 모성예찬으로 나타난 것이다."⁵⁴⁾

이와 같이 1930년대에는 남성에 의한 모성의 예찬이 많았는데 김기림이 시나 소설, 희곡, 수필 등에서 보여준 인식은 그것과 대조적인 면을 띤다. 그의 소설 「철도연선」에 등장한 “윤씨”가 기존의 유교적 규범이 요구하는 가정에 머물지 않고 집을 뛰쳐나간 것이나, 희곡 「바닷가의 하룻밤」에서 “영희”가 찾아온 남편을 맞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심한 것이나, 시작품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에서 “안혜”를 이상향인 “바빌론”으로 기꺼이 보내려고 한 것이나, 수필 「환경은 무죄인가」에서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자살한 두 여성을 옹호한 것이나, 문명비평인 「정조문제의 신진망」에서 정조관념이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면이다. 김기림은 여성을 모성애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기림의 여성의식은 모더니즘 문학을 추구한 그의 작품세계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광의적으로 보면 모더니즘이란 20세기에 성립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모든 예술 경향을 말하는데, 당대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및 부정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존의 문화적 전통을 비판하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즘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1930년대이고 그것을 소개하고 적용한 선두주자가 김기림이었다. 김기림은 기존의 문학적 전통에 해당하는 감상주의와 편내용주의를 부정하고 그 자신의 창작품에 있어서 과도한 감정이나 이념의 노출을 지양했다. 그리하여 김기림은 기존의 창작태도와는 다르게 사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했고, 또한 새로운 실험성을 추구했다. 그동안 김기림의 이와 같은 면을 엘리엇이나 홉이나 리처즈 같은 서구문학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결

54) 안태운, 앞의 글, p.156.

과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한 측면이 있다. 김기림이 살아가던 시대는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구문학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기림이 추구한 모더니즘 문학은 한국 문학사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며, 그의 여성의식 또한 새롭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1940년대에 들어 김기림의 여성의식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만다.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일제는 국민징용령 실시(1939.10), 중등학교 이상에 학교총력대 결성 지시(1941.9)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시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그리하여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창씨개명(1940)을 강요했고, 국어의 수업 및 사용 금지(1942)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공출을 실시하여 쌀 생산의 63.8%(1943)까지 강탈해갔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 광산, 철도건설, 토목공사, 조선소, 칠강소 등에서 노예 노동을 시켰다. 그리고 1944년에는 총동원법으로 조선인 징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동원규정을 공포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강제 동원체제를 확립했으며, 여자정신근로령까지 공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김기림의 작품들에 여성이 등장하고 있지만 주체적인 삶의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의식을 추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성적 원리에 따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사고는 새로운 표현양식을 요망한다.”⁵⁵⁾라고 그 자신이 말했지만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 이상 전망이 보이지 않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는 친일 글은 쓰지 않았지만, 여성의식을 확장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55)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②』, p.228.

3. 결론

김기림은 서구의 문학이론을 받아들여 한국의 문학을 평가하고 또 극복하려고 했던 시인이고 비평가였다. 또한 한국 문학사의 평가에서는 제외되고 있지만 인정할 만한 소설가였고 극작가였으며 수필가였다. 김기림은 형식주의자나 기교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와 표현력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며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려고 그들의 언어를 성실하게 작품에서 활용했다.

김기림이 살아가던 1930년대의 여성들은 근대교육을 받고 여성지를 읽고 각종 서구문화의 접촉 등을 통해 이전 시대의 여성들보다 근대적 의식을 가졌지만,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서 위치에 있었다. 그러한 데는 기존의 유교적 규범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대적인 제약도 있었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 및 자국 생산물의 소비시장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했다. 조선에 백화점을 세우고 철도를 부설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한 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색찬란한 포스터를 붙이고 마네킹을 세우고 수많은 물건들을 진열해놓고 조선인들에게 소비를 유혹했다. 그러므로 경성의 거리에 카페, 아스팔트, 네온사인, 영화관, 웨이트리스, 모던 걸, 모던 보이, 신문, 라디오 등이 근대라는 불빛으로 빛났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의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서도 조선 여성들의 진정한 삶은 달성되기 어려웠다. 일제에 의한 근대화여서 주체자인 여성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그와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자신이 추구할 창작방향이라고 생각했다. 기존의 문학 규범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에 대해서 주체적인 태도로 담아내는 것이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는 자세라고 생각한 것이다. 김기림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기존의 문화적 전통을 비판하고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모더니스트처럼 기존의 문학에서 나타난 감상주의와 편내용주의를 부정했다. 그리하여 과도한 감정이나 이념의 노출을 지양하고자 노력했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위적인 실험성을 추구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김기림이 살아가던 시대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의 상황이었다. 김기림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윤리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의 신정조관, 근대적 여성미, 평등한 결혼생활 등을 전위적인 실험성으로 추구했다. 결국 김기림의 여성의식은 그의 모더니즘 문학이 감각적 이미지와 형식적 기교의 측면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무게를 갖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①시』, 심설당, 1988.
 _____, 『김기림 전집 ②시론』, 심설당, 1988.
 _____, 『김기림 전집 ③문학론』, 심설당, 1988.
 _____, 『김기림 전집 ④문장론』, 심설당, 1988.
 _____, 『김기림 전집 ⑤소설·희곡·수필』, 심설당, 1988.
 _____, 『김기림 전집 ⑥설문답·과학개론·문명비판·시론』, 심설당, 1988.

2. 단행본 및 논문

- 김동석, 『예술과 생활』, 박문출판사, 1948, p.43.
 김용직,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p.284.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p.47.
 김윤식, 『한국현대작가논고』, 일지사, 1974, p.99.

- 김인환,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9, p.108.
- 김종길,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p.217.
- 김춘수, 「교훈에서 창조로」, 조선일보, 1978.12.5.
- 김학동, 『김기림 연구』, 새문사, 1988, p.3.
- _____, 『김기림 평전』, 새문사, 2001, pp.15~41.
- 김학동 편, 『김기림 연구』, 시문학사, 1991, pp.12~239.
- 노자영, 「문예에 나타난 모성애와 「영원의 별」」, 『신가정』, 신가정사, 1934.3, p.78.
- 문덕수,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시문학사, 1992, p.245.
- 맹문재, 「일제 강점기의 여성지에 나타난 여성미용 고찰-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9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03.12, pp.5~30.
- 박철휘, 『한국시사연구』, 일조각, 1980, p.234.
- 송 옥, 『시학평전』, 일조각, 1963, p.186.
- 안태윤,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제19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03.12, pp.75~114.
- 유각경, 「어떤 어머니가 될가?!」, 『신여성』, 개벽사, 1931.6.
-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0, pp.160~210.
- 이광수, 「어머니」, 『신가정』, 신가정사, 1933.4, p.155.
- 이동순, 「김기림 시의 새로운 독법」, 『분단시대』 4, 학민사, 1989, pp.24~33.
- 이승원,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p.121.
- 임 화, 「1933년의 조선문학의 제경향과 전망」, 조선일보, 1934.1.14.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242.

Abstract

On Understanding of Women in Kim, kiram's literature

Maeng, Mun-Jae

Kim, kiram was a poet, critic, novelist, dramatist and essayist who tried not only to evaluate but surmount Korean literature, receiving western literary theory. He was not a formalist or a technician but he was interested in language and its expression.

Being educated, women in 1930s had a kind of modernistic consciousness than former women because they could read the ladies' magazines and contact with western culture. Nevertheless, they were a kind of minorities compared with men. It was because that Confucian ideas and restraints of the times were so strong. About 1930s, Japan, considering Chosun as their food suppliers as well as market for their products, began to exploit Chosun. It results in the failure of accomplishing women's subjective life in Chosun.

By 1940s, Kim, kiram's understanding of women couldn't extend since he could no longer believe in the possibility of transforming reality through reasonal principle.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no one could see the future prospect, it was difficult to try to extend his cognition of women.

key words : understanding of women, modernism literature, women's subjective life, women's cosmetic, women's rights on household affairs.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